

전북도, 스포츠산업 육성 나선다

6월까지 발전방안 모색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북도는 오는 6월까지 '전라북도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표로 체육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스포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

정과제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산업이 융합기술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다 생활체육의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스포츠 산업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 및 대응 전략 수립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스포츠산업 현황조사를 벌여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북도 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매년 스포츠산업 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북 스포츠산업

환경분석, 전북스포츠산업 육성방안 및 추진과제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북 스포츠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이고 제대로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018년도 전북장학숙

신규 입학생 합격자 발표

전북도는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 전주장학숙의 신규 입학생 242명(서울 122명, 전주 120명)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출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학숙은 입사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29일)까지의 접수기간을 통해 총 756명(서울 524명, 전주 232명)의 학생들이 접수, 서울장학숙은 4.3:1, 전주장학숙은 1.9: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8년 전북장학숙 신규 입학생으로 확정된 242명의 학생들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전주장학숙을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등록 전 1주일 이내 병·의원 발행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입사대기자로 관리되며 연중 결원 발생시 순위에 따라 입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정부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할 것”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중단과 관련,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최정호 정무부시사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외계층 위한 따뜻한 일자리 확대

전주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공식 오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정보 담아

전주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향상을 돕는다.

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주시역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www.jsoel.kr)을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원리,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전주시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66곳, 마을기업 5곳, 협동조합 60곳, 자활기업 14곳 등 총 145개 기업이 소개돼 있다.

특히 각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규남 기자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전주시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훈련, 캠프, 워크숍 및 아카데미 일정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유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장이 확대, 이를 토대로 장애인과 저소득 자활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에 힘을 계속”이라며 “사회적경제 가치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올 전북 개최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박차

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633억원 연차별 투자
익산종합경기장 등 종목별 경기장 신축·개보수
시군 특화 종목·지역 안배 고려 종목별 경기장 배정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조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양대 체전의 개최확보에 이용될 익산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축구 등 47개 종목 70개 경기장에 대하여 시군 특화 종목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 14개 시군에 최소 1개 종목 이상을 치를 수 있도록 배정토록 했다.

체전경기장 시설 확충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예산을 투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알뜰한 체전 예산의 20%를 배정해 별도 선별하고 총 연수인원의 2% 정도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신축보다는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2016년부터 총사업비 63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익산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신축 및 개보수(신설 2, 개보수 50)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용될 경기장 시설에 대한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대회·행사장 홍보 및 숙박·교통·경기장주변 환경정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래 전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키운다

전주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추진... 내달 16일부터 신청접수

전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전주의 미래를 바꿀 글로벌 인재 키운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9명과 중학생 78명, 대학생 6명 등 총 153명을 선발해 '2018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외연수사업은 참가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서 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23

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18일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주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학교의 정량화된 성적이 없는 관계로 영어권은 EBS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능력 공인인증시험인 TOSEL 특별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토셀특별시험은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예정이며 인터넷 토셀 홈페이지(www.tosel.org)에서 접수하면 된다. 초등학교 5~6학년은 베이직(Basic), 중학교 1학년은 주니어(Junior), 중학교 2,3학년은

하이주니어(High Junior)레벨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인재육성재단은 대중국 교류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기존 영어권 연수장학생이 중국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 연수활성화를 위해 연수기간을 25주로 확정, 연수비용의 지원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전북도는 그간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 등의 의

견을 수렴해 가정편에 관계없이 해외연수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시 생활정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현지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현지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중학생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선발기준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연수생에 한해 생활정도 평가는 생략하고 토셀성과 면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추진 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전액 예산의 20%를 배정해 별도 선별하고 총 연수인원의 2% 정도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채규남 기자

